

汎齒科醫學界가 參與한 '91 和合을 다짐한 齒協의 新年交禮會 및 學術大賞 受賞式 舉行

'91 學術大賞에 丁東均教授, 新人學術賞엔 金聖祚氏 各各 受賞

치협은 지난 1월 4일 63빌딩 58층 르네상스 룸에서 신년교례회를 갖고 새해업무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치협회관에서 협회내의 행사로 개최하던 선례를 깨고 범치과계의 인사들을 두루 초청하여 외부에서 열린 금년 신년모임은 치협을 위시하여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치재협회등 치과계의 유관단체들도 모두 참석하여 尹興烈집행부의 화합을 다짐하는 노력에 함께 동참했다.

李鍾律총무이사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교례회에서 尹興烈협회장은 치과계에 보내는 신년인사를 통해 「경오년이 가고 羊의 해인 신미년에는 치협창립 7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로 치과계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위대한 힘을 국민에게 보여 줄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오늘 이자리를 치과계의 모든일들을 성취할 수 있고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만들자」고 다짐하며 치과계 모든 사람들의 소원성취를 기원했다.

이날 모임에는 치협회장단을 비롯하여 임원들과 金東順치정회장, 池憲澤아태연명회장, 李水玉 치협고문, 李鍾守치협명예회장 등과 金明國 서울치대학장, 李在賢단국치대학장, 이정석 前연세치대학장등 많은 교수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한편 이어진 협회학술대상과 신인상 시상식에는 영예의 학술대상에 서울치대 약리학교실의 丁東均교수와 신인상에 부산치대의 金聖祚 전임강사가 각각 수상했다.



*범 치과계 인사들이 모두모여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학술대상을 수상한 서울대의 丁東均교수는 지난 30년간 외골수로 치과약리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1961년 전후복구기에 치과약리학 과목이 부활되며 시간강사로 연구활동을 시작한 이래 114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하며 후학을 양성하는데 진력하였으며 1968년에는 美 로체스터 의대 치과학교실에 유학하여 4-iodoantipyrine 또 Xenon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구강 또는 피하조직의 혈류량에 미치는 여러 약물의 영향을 연구 발표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소의 항우치효과, 용량-치아별 농도의 상관관계 및 dental fluorosis의 전자현미경상등 불소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연구하였으며 그후로도 현재까지 골생물분야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경조직약리학의 학문적인 체계수립과 후진양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 → 관련화보 p.46 참조